

부활절 세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sup>RD</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2년 5월 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65 장 “예수께로 가면” (통일 30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96 번 어린이 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Acts) 1:1-5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대
설 교 Korean Sermon	“ <b>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b> ” (Do Not Leave Jerusalem)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감사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20 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통일 27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칭찬 듣는 것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공허했고,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힘 없이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좇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소원하오니,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참된 믿음을 더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8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개역개정 행1:4)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NIV Acts 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 (주일)	5/2 (월)	5/3 (화)	5/4 (수)	5/5 (목)	5/6 (금)	5/7 (토)
	민8	민9	민10	민11	민12,13	민14	민15
본문	시44	시45	시46,47	시48	시49	시50	시51
	아6	아7	아8	사1	사2	사3,4	사5
	히6	히7	히8	히9	히10	히11	히12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5/4수 오후7:30)	“일어나거나 보지도 못한 이런 일” (삿19:16-30)
토요 새벽기도회(5/7토 오전6:30)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양이니” (시 79:1-13)

지난 주일(4/24) 말씀 –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14)

“갈릴리로 가라” (마 28:1-10)

오늘 본문(마태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쉬지 않고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었던 거리였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신 것은 1)첫째,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였으며,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처음)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2)두번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세번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믿음의 여정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부터 (항상)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도) “중심부로 들어가라” 또는 “고지를 점령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지속적으로 주변부 또는 변두리로 알려진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영적 갈릴리”를 향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